

재외동포의



2012 6 월호

여수엑스포 국제관 곳곳  
재외동포 청년들이 누빈다





## 얼굴무늬 수막새 신라인의 담백한 미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웃음 짓고 살았을까. 이쯤하여 '한국의 미소'는 어떤 웃음일까

신라인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기와 '얼굴무늬 수막새(7세기)'는 한국 미소의 전형으로 꼽힌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다. 수막새의 얼굴에는 일체의 꾸밈이나 과장이 없다. 살짝 부풀어 오른 두 뺨, 지그시 감긴 눈, 씩 올라간 입술이야말로 친근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미소다. 어린 시절 따스하게 감싸주던 누나의 웃는 얼굴이다. 미인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얼굴에서 어쩌면 저렇게 담백한 미소가 나올 수 있을까. 저 신라인들이 웃는 얼굴이 눈에 선하다.

수막새란 기와지붕의 처마 쪽 끝을 마감하는 기와를 말한다. 그러니 지붕의 처마 끝이 온통 웃는 얼굴 아니었을까. 골목길을 걸으며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의 웃는 얼굴들. 신라 사람들은 참으로 유쾌하게 생활했을 듯 싶다.



04



08



10

## Contents 2012 6월호

- 02 **한국의 얼**                   얼굴무늬 수막새 신라인의 담백한 미소
- 03 **목차**
- 04 **특집**                       여수엑스포, 재외동포들이 돕는다  
국제관 홍보 등 참여 “자긍심 느껴요”
- 06 **글로벌 코리안**           선진국 주류사회에 우뚝 선 한인들
- 08 **포커스**                   “모국에 보탬이 되는 한상, 한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한상”  
10월 열리는 서울 세계한상대회 ‘한상 도약’ 기틀 다진다
- 10 **화제**                       젊은 한상들 손에 손잡고 “힘 모읍시다”  
‘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도쿄 컨퍼런스 열기 후관
- 12 **현장의 목소리**           통합 이론 유럽총연 화합·축제의 한마당  
‘2012 유럽한인체육대회’ 런던서 성황
- 14 **지구촌 통신원**           한-카자흐 수교 20년 흥겨운 ‘한민족 축제’
- 15 **칼럼**                       재외동포 문제, 조사연구 중요하다  
이선민 조선일보 오피니언부장
- 16 **한상칼럼**               한상 네트워크, 한국의 성장 원동력  
손창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 17 **한상넷**                   클릭! 한상넷(www.hansang.net)
- 18 **OKF 뉴스 광장**       ‘제7회 동남아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싱가포르서 열려 외
- 21 **한민족 공감**           한·중·일 정상회의 ‘안보-경제협력’ 논의 외
- 22 **한글학교 탐방**       개교 50년 일본 나고야 한글학교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나의 살던 고향**       한산모시의 맥을 이어온 ‘서천’  
자연의 날줄과 인간의 씨줄이 만나다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 표지

국제관 홍보 등 곳곳에서 재외동포들의 활약으로 여수 엑스포가 더 빛나고 있다. 동포들은 모국에서의 봉사를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수엑스포, 재외동포들이 돕는다 국제관 홍보 등 참여 “자긍심 느껴요”

93일간의 문화 대향연, 여수엑스포 열기가 뜨겁다.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엑스포에는 세계 104개 국가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재외동포들의 활약으로 엑스포가 더 빛나고 있다. 참가국은 한국계 인재를 모집해서 엑스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중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동포들은 모국에서의 봉사를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국제관 곳곳에선 한국계 동포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참여국들이 전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관람객과 소통을 돕기 위해 한국계 인재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관에 근무하는 통역, 안내 등을 비롯해 관계자 가운데 한국계 동포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홍보관 관장이나 전시기획자, 홍보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에 일조하고 있는 동포들은 한결같이 “모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놀라고 엑스포 성공에 일조하고 있어서 자긍심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 “나는 한국계” 정체성이 홍보에 도움



미국 측은 또 한국 문화와 익숙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 ‘학생 대사’ 40명을 여수에 파견했다. 미국관 운영을 돕고 있는 이들 중 10여 명이 한국계 재미동포다. 재미동포 2세로 미국관 첫 부스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새라 리(18)양은 “미국인이면서 또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것이 여수 엑스포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리 양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대학교수의 추천으로 엑스포 봉사에 합류했다.



네덜란드측은 아예 한국계 네덜란드 동포 2세에게 네덜란드 국가관을 통째로 맡겼다. 국제관B 1층 네덜란드관에서 만난 폴 정(40) 네덜란드관장은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계 네덜란드 동포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네덜란드를 알

리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노트르담의 걸베인 고등학교 교감이기도 한 그는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낮아서 일찍부터 해양개발에 힘써왔다”며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여수엑스포가 제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나는 네덜란드인처럼 생각하지만, 마음만은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관에서 플로어 안내를 맡고 있는 전 지원(20) 씨는 호주 시민권자다. 전 씨의 어머니는 호주관에서 통역봉사를 하고 있다. 전 씨는 “엑스포는 한꺼번에 모든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한국계라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서 발탁됐다”고 말했다.



독일관에서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박 나탈리아(27) 씨는 본대학에서 독어·영어·한국어를 통역을 전공했고 서울대대학원에서 2009년부터 국제지역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한 독일 문화원에도 근무했던 그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 유학 및 문화원 근무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점이 대회 조직위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포 근무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한국과 독일간의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독일관에서 통역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김경아(24) 씨는 “2008년 연세대학에서 단기 연수를 하면서 한국을 경험했다”며 “엑스포를 찾는 한국 관람객들은 서툰 한국말로 안내를 해도 따뜻이 환대해 주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관에 근무하는 통역, 안내 등을 비롯해 관계자 가운데 한국계 동포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고 밝혔다. 미국관에는 재미동포 1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좌측 두 번째부터 박민철, 이재희, 전혜련, 박한나, 김선.

다. 독일관의 통역안내에는 전체 60명 가운데 20명이 한국계 동포들로 이뤄졌다.

### 거주국과 모국의 '가교' 희망



스위스관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박민주(42)** 씨는 스위스인과 국제결혼한 여성이다. 박 씨는 한글학교 교사이기도 한데 스위스한인연합회를 통해 한글학교에 엑스포 도우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대전엑스포에서 통역 도우미를 한 인연도 있는 그는 한국에서 열린 2대 엑스포에서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스위스관을 둘러본 관광객이 '뭔가 생각하게 만든다. 체험을 통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때 가장 기뻐다"고 말했다.



호주관에는 전시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외교관 **김형민(42)** 씨가 있다. 그는 "호주의 외교관으로서 한국과 호주 간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한국과 호주는 매우 가까운 나라이고 서로에 중요한 나라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 북동아시아부 한반도·몽골과 소속 주무 사무관이 다. 이번 엑스포 지원을 위해 파견됐다.

호주 공직사회의 특성에 대해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여가를 즐

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면서 동포 1.5세와 유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결려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 자원봉사센터는 12일 개막부터 8월 12일 폐막일까지 93일 동안 자원봉사자 1만3천여 명이 10기수로 나눠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1기로 등록한 자원봉사자 중에는 파독 간호사 할머니들이 시선을 끈다. **윤행자** 한독간호협회 회장(70·여) 등 파독 간호사 할머니 6명과 윤 회장의 남편 **페터 피셔** 씨(75)는 엑스포 개막 때부터 엑스포장 3번 출구에서 통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수엑스포 정문에서 안내 겸 통역 봉사를 펼치고 있는 파독 간호사들. 왼쪽부터 윤행자씨 남편 페터 피셔, 김정자, 김현진, 지화순, 설경자, 윤행자씨, 윤영자씨는 사정상 빠졌다.

한독간호협회 회원인 **김현진** 씨(65·여)는 지난해 전남 여수를 여행하다 엑스포 자원봉사를 뽑는다는 현수막을 봤다. 이후 독일로 돌아가 회원들에게 '자원봉사 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할머니들이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할머니들은 자원봉사를 위해 자비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40년 이상이 베테랑 간호사들이지만 "응급처치에 자신 있지만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장**



# 선진국 주류사회에 우뚝 선 한인들

**최** 근 재외동포 2·3세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프랑스 장관, 미 연방 판사를 비롯해 덴마크 주재 호주 대사 등 해당 국가의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 21세기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중의 정체성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인, 한국계라는 것을 뛰어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21세기 한국, 나아가 미래는 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계 최초 프랑스 장관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아 올랑드 프랑스 새 대통령 정부에서 5월 16일 중소기업·디지털 경제장관에 발탁된 플뢰르 펠르랭(38, 한국명 김종숙)은 한국계 입양인 이다.

한국계 입양인이 프랑스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을 통틀어 장관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펠르랭 장관은 문화, 방송, 디지털경제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올랑드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회계감사원에서 문화·시청각·미디어·국가교육 담당 검사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명석하고 단호하며 활동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펠르랭 장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사업가였던 양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양어머니와 함께 몽트뢰유에 있는 영세민용 임대아파트에서 3년동안 살다 베르사유로 이주했다.

머리가 뛰어나 16세에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7세에 상경계 그랑제콜인 에섹(ESSEC)에 진학했으며,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국립행정학교(ENA) 등 최고 명문학교들을 거쳤다.

당적을 초월한 프랑스 최고 여성 엘리트 정치인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21세기 클럽' 회장을 지냈으며 소외지역 우수 중고교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탁월함과의 대담'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다방면에 걸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가 향후 3~4년 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뿐 아니라 유럽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성장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한다.

펠르랭 장관은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과 디지털 경제 시스템, 기술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계 첫 프랑스 상원의원 장-뱅상 플라세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한구계로는 입양인 출신의 상원의원 장-뱅상 플라세가 있다. 그는 프랑스 녹색당 사무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상원의원 선거에 일드프랑스에 손 지방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 당선 의 영광을 안았다.

플라세 상원의원은 7세 때인 1975년 프랑스로 입양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93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2001년 녹색당에 가입했다.

녹색당 2인자인 사무부총장까지 올라 일드프랑스 지방의회 의원으로 교통담당 부의장직을 수행해온 그는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기록도 세웠다.

플라세 당선자는 부유했던 입양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뒤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금융기업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르 피 가로는 보도했었다.

플라세는 자신을 입양해준 조국 프랑스를 사랑한다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



지 르 몽드는 그를 녹색당 내에서는 협상의 귀재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 사상 세번째 '한인 美연방 종신 판사' 존 리



미국 연방상원은 5월 7일 시카고 출신의 한인 존 Z.리(44, 한국명 이지훈) 변호사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종신 판사로 확정했다.

리 판사는 딕 더빈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민주, 상원 원내총무)의 추천을 통해 지난 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미국 법조인들이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연방 종신 판사 후보에 오른 리 판사는 “영광스럽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원 인준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의 저명한 판사들과 함께 봉직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 판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파독였던 광부 이선구 씨와 간호사 이화자(68) 씨의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생후 3개월 무렵 한국으로 보내져 5세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리 판사의 가족은 그가 5세 때이던 1970년대 초 미국 시카고로 이민, 시카고 북서부 교외 도시에 터를 잡았다.

시카고에서 초 중 고교 시절을 보낸 리 씨는 하버드대학(1989년 졸업)과 하버드 로스쿨(1992년 졸업)을 차례로 우등 졸업했다. 1991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오바마 대통령과는 2년간 학교를 같이 다녔다.

## 한국계 덴마크 주재 호주대사 제임스 최

호주 한인 1.5세가 덴마크 주재 호주대사로 부임해 활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제임스 최(39, 한국명 최웅)씨가 지난 덴마크 주재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해외 한인 1.5세가 거주국 정부 해외 주재 대사에 임명된 사례는 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호주 외교통상부와 총리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뉴욕 유엔본부와 주한호주대사관에서도 근무



한 경력이 있다.

최 대사는 1970년 한국에서 출생, 부모를 따라 4살 때 호주로 이민와 시드니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드니의 명문고인 시드니테크니컬하이स्कूल을 거쳐 시드니대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뒤 1994년 어렵기로 소문난 외교통상부 시험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 한국계 美 국립예술위원 에밀 강



미국의 문화 예술 정책을 심의의 전문하고 국립예술기금을 관장하는 국립예술위원회 위원에 한국계 에밀 강(44)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음대 교수 겸 예술관장이 뽑혔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국립예술위원은 한해 예산이 1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 국립예술기금(NEA)을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미국의 공연 예술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1965년 창설된 국립예술위원회는 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뽑힌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에밀 강은 이민 온 한국인 부모를 두고 1968년 뉴욕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2세로 UNC 예술관의 공연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대학과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를 통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UNC로 옮겨오기 전에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 겸 총감독을 역임했고,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감독 등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경력을 쌓았다.

뉴욕주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에밀 강은 미국 내 메이저 심포니 오케스트라 운영을 총괄하는 최연소, 첫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밀 강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분을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



# “모국에 보탬이 되는 한상, 한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한상”

10월 열리는 서울 세계한상대회 ‘한상 도약’ 기틀 다진다

글로벌 한상들의 비즈니스 축제인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동포사회 경쟁력 강화, 국내 및 재외동포간 비즈니스 교류확대, 한식세계화 등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발전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해왔다.

재외동포재단은 모국과 동포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한상의 모국 경제기여를 매년 확대해 왔다. 특히 한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한상넷’을 개설해 상시 비즈니스가 이뤄지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재단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활성화시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등 한상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의 특성을 실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한민족’이라는 공감대로 나의 비즈니스를 논하면서도 파트너의 성공도 함께 고민해주는 이른바 진정한 한상네트워크의 경험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포재단은 최근 한상대회 10주년 종합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등을 모색해왔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그런 결과를 반영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꾸며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국에 보탬이 되는 한상, 한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한상으로 대회를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16일~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세계한상대회’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꾀하고 내실 있는 대회운영을 통해 한상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매력 있는 한상 신규 발굴 및 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일대일비즈니스미팅도 강화한다.

특히 리딩CEO와 영비즈니스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합동포럼이 이번 대회에 새롭게 신설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은 업종별로 나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경매 및 바자회도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폐막 전에는 한상들이 모두 참여해 한상과 한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김 이사장은 “한상대회를 통해 한상의 브랜드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통해 ‘한상’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



## “국내 중소기업에 실질 도움 되는 대회 열겠다”

**세** 계한상대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소네트 그룹 조병태 회장을 선출했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상대회를 오랫동안 참여해온 만큼 금년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 ‘알짜배기’ 우수중소기업 참가 ▲ 집중적인 멘토제 시행 ▲ 실질 행사 진행을 위한 일정 변경 등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 일답

**Q\_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은?**

**A\_** 10차례 세계한상대회 마쳤다. 11차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니만큼 새로운 각오와 시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상인으로서 이번 대회는 크게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어깨가 무겁다. 그래서 동포재단에게도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신선한 형식으로 접근하자고 요청했다. 이번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해외경제인과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한상대회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화상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광요가 리더로서 가장 잘 이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상도 이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

**Q\_ 한상대회에 당장의 실적보다 네트워크를 통해 길게 내다보라고 했었는데?**

**A\_**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적보다도 중요한건 인적네트워크다. 무역을 하는 기업인은 대부분 초기부터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멀리 그리고 길게 봐야지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야 한다. 11차부터는



조 병 태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개최지인 서울에는 좋은 회사가 많다. 시장개척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우수 업체들을 선별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행사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 업체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미팅장소를 구분시켜놓고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Q\_ 국내외 참가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A\_** 첫째로 한상대회 참가자들 본인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담회에서 다른 업체들의 전시회를 보도록 해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로 명함을 충분히 만들어서 뿌려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국내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도 중요하므로 하나하나의 노력이 지금은 작은 걸음에 불과해 보이겠지만 후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성공한 한상들이 해외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이 전수해야 한다. 차세대들을 위한 멘토도하고 자기 고생담, 모교, 대학, 중고교에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가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한다.

이제는 성공한 한상들이 늘고 그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업체들은 해외 한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은 거주국 언어와 마케팅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



# 젊은 한상들 손에 손잡고 “힘 모읍시다”

## ‘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도쿄 컨퍼런스 열기 후끈



전 세계 젊은 동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3회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컨퍼런스'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젊은 한상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번 대회에서는 20여 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상들은 제일동포 한상업체인 (주)에이산을 방문해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로 인해 재외동포들도 3세, 4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대가 내려갈수록 점차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차세대 젊은 한상들이 더욱 발굴되고, 한상대회를 통해 세계 각지의 한상들과 만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재외동포재단은 주력해오고 있다.

전 세계 젊은 동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3회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컨퍼런스'가 5월 21일 일본 도쿄 록폰기힐즈클럽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 대회는 각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동포 한상 차세대들이 모여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역동적인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YBLN네트워크는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세계한상대회 제 7차(2008) 대회에서 결성됐다.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열리는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출신의 동창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5월 23일까지 열린 올해 행사에는 20여 개국 70여명의 젊은 사업가들과 30여명의 일본 한상들이 참석했다. YBLN은 세계한상대회에서 만난 젊은 동포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로 한상대회(10월) 전에 열리는 중간 모임 성격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컨퍼런스는 각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개막식은 한창우 마루한 회장 겸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의 강연과 내외빈 축사 순으로



로 진행됐다.

고해정 YBLN 일본 컨퍼런스 준비위원장은 “세계는 젊은 한상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IT·건설·유통 등 업종별 회사방문과 비즈니스 강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YBLN은 미래의 한상이면서 한상의 미래”라며 “YBLN에서 한창우 마루한 회장을 뛰어넘는 기업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모인 영한상들은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앤소니 박 앱스루트컨설팅 파트너는 “YBLN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다”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다”라고 전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무역·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이진우 대표는 “YBLN 네트워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친

목을 떠나 비즈니스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회 둘째 날에는 일본의 젊은 한상들이 활약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 대표적으로 일본 막걸리 유통의 절반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E-DON을 비롯해 지방공항의 면세점 등에 입점해 있는 (주)에이산 등을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일본 국내에 부동산 프랜차이즈 200여 점포를 가지고 있는 하우스DO의 대표인 재일동포 3세 안도마사히로의 강연 등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셋째 날 재일동포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며 차별에 맞서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온 재일한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도쿄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신오쿠보거리 등도 방문했다.

YBLN은 이번 모임에서 내년 5월 중간모임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기로 결정했다. **창**

도쿄=정승환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리딩CEO 강연 / 한창우 마루한그룹 회장

## “기업가의 덕목은 열정·도전·도덕성”

한창우 마루한그룹 회장(82)이 후배한상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16세 나이에 무일푼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 회장은 일본 파친코 업계 70%를 장악한 기업가다. 그가 세운 마루한은 연 매출 30조원에 달하며 종업원은 1만5000명이 넘는다.



한창우 회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회원들과 만나 “40년 전 일본 전역에 볼링장 6곳을 연 것이 화근이었다. 볼링장 영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60억 엔 빚더미에 안게 됐을 때 고의로 부도를 내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면 지금의 한창우는 없었을 것”이라며 “윤리적인 기업가만이 성공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후배들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형그리정신 ▲도전정신 ▲긴장감 ▲신용·봉사로 정의했다. “배고파야 열정이 생기고 도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그리고 조직엔 항상 긴장감이 흘러야 한다.”

그는 실력제일주의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마루한은 학력

보다는 실력을 우선시한다”며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 등을 직원으로 뽑는 것은 독약이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최승업 나나텔 사장이 에너지의 원천에 대해 질문하자 한 회장은 “나는 일곱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다. 그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물류회사인 PTV를 운영하는 최분도 사장은 “개발도상국 직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심어 주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창우 회장은 “돈이 아닌 공생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출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대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1931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한 회장은 1947년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호세대학 재학 중엔 마르크스·엥겔스 등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기도 했지만 비즈니스를 알게 되면서 철저한 기업가로 거듭났다. 1953년 대학 졸업 후 교토에서 의형이 경영하는 파친코 업체에 취업했다. 이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자 1957년 이를 인수해 마루한을 설립했다. 파친코 성공을 바탕으로 푸드 서비스업, 청소용역업, 광고업, 건축업, 보험업, 은행업 등에 잇달아 진출했다. **창**





# 통합 이룬 유럽총연 화합 · 축제의 한마당

‘2012 유럽한인체육대회’ 런던서 성황

**전** 유럽 한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2 유럽한인 체육대회’가 영국에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유럽 각국 한인회장을 비롯해 선수단과 관중 등 500여 명이 모여 축구와 골프 시합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분열을 딛고 하나로 통합된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중범, 이상은 유럽총연)가 유럽 한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박중범 유럽총연 회장은 “유럽총연의 최우선 목표는 차세대 육성”이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유럽 한인동포들이 하나가 되고 차세대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5월 26일(토)에는 유럽한인축구대회가 워블던 축구장에서 개최

한 날씨 속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제1회 대한축구협회장배’로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시상을 했다. 대회 우승의 영광은 독일이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영국YB팀과 BEC 팀이 차지했고 4위는 이탈리아에게 돌아갔다. 우승팀에게는 상금으로 2천유로, 2위 1천500유로, 3위 1천유로, 4위 500 유로가 전달됐다. 대회 참가팀 모두에게는 600유로의 참가상금도 지급되어 승부를 떠나 모두가 즐기는 대회였다.

지난해 로마에서 우승한 영국 팀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11개 팀이 참가했다. 선수 외 참가자들은 축구 시합을 응원하면서 족구와 다트 게임에 참가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시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선리그, 토너먼트 방식을 병행했다. 강력한 우승후보중 하나인 프랑스가 준준 결승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고 결승전에는 예상대로 영국과 독일 팀이 올랐다. 많은 이들이 홈팀의 이점을 살린 영국이 우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독일 팀은 저력을 발휘해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전에 들어가 골든골을 넣으며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전을 관람한 한인회장들은 독일의 ‘끈기와 저력’이 ‘조직





2



3



4

- 1 축구대회는 영국 팀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11개 팀이 참가했다.
- 2 전 유럽 한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2 유럽한인 체육대회'가 영국에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 3 축구대회 첫 우승컵은 독일팀에게 돌아갔다.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페어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을 격려했다.
- 4 골프대회 개인전 우승은 영국 팀의 박익현 씨가 차지해 부상으로 서울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

유럽 한인회장 등 외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골프대회 단체 우승은 오스트리아가 차지했고 개인전 우승은 영국 팀의 박익현 씨가 차지해 부상으로 서울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

저녁 식사와 시상식이 끝난 후 여흥시간에는 참가자와 응원단 등의 즉석 노래자랑을 비롯해 경품추첨도 열려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는 런던올림픽한인지원단에서 200여명이 참여해 체육대회의 봉사요원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선수단 공항마중에서부터 통역, 행사안내, 배식과 청소 등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런던올림픽에서 봉사단 활약 전망을 밝게 했다.

력과 개인기'의 영국을 이겼다며 역시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독일 팀의 마틴 씨는 부상으로 런던 올림픽 축구 한국전 관람 티켓을 받았다.

독일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동 씨는 한국 프로축구 구단인 포항스틸러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유럽에서 지도자 연수 받는 중에 감독을 맡았다. 김 씨는 "독일 축구의 저력은 끈기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승부근성"이라고 소개했다.

축구대회 전반적인 진행을 맡은 재영한인총연합회의 박영근 회장은 "판정시비를 없애기 위해 예선부터 결승까지 현지 심판진을 기용했다"며 "유럽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 대회 참가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다음 대회를 약속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한인 차세대들이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하나가 된 경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며 페어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을 격려했다.

### 친선과 화합도모 '골프대회'

축구 시합에 이어서 27일(일)에는 와일드우드 골프클럽에서 '전 유럽 한인 골프대회'가 열렸다. 유럽 9개 나라에서 103명의 한인들이 모여 골프 시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추규호 주영한국대사와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

### 유럽총연 첫 상임이사회

유럽한인체육대회에 앞서 5월 25일에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상임이사회가 뉴몰든에 위치한 재영한인종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통합 유럽한인총연합회로 출범하면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롭게 조직된 상설기구로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총회 전 최고 의결기구다. 구성은 각 유럽 한인회의 현임 및 전직 회장들과 한인수 비례에 따른 지명직 이사들로 구성되었다.

김봉재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는 2012년 총연의 사업을 소개했다. 지난 3월 10일 독일 한인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고 5월 25일~27일에 유럽한인체육대회가 영국에서 열렸다. 7월5일~16일에 남북통일기원 '유럽차세대국토대장정'에 80여명의 유럽 한인 차세대가 참가해 여수엑스포에서 판문점까지 국토를 종단할 계획이다. 9월에는 유럽차세대협의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10월에 '유럽차세대옹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유럽총연이 발족하면서 임원수락서와 회비를 내지 않은 임원에게 6월말까지 회비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체육 분과와 문화 분과위 설립, 회장단 회비의 현실화 등도 논의했다. **장**

런던=강성철 연합뉴스 기자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 및 고려인 이주 75주년을 기념하는 한민족 축제가 5월 12일 알마티 카주구 대학교에서 열렸다. 고려극장 무용단이 소고춤을 추고 있다.



고려인과 한인 1천여 명이 참석한 한민족 축제에서 고려극장 무용단이 카자흐 전통춤을 추고 있다.



5월 28일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우수토베에서 고려인 정주 75주년 기념 감사비 제막행사가 열렸다.

# 한-카자흐 수교 20년 흥겨운 ‘한민족 축제’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 및 고려인 이주 75주년을 기념하는 한민족 축제가 5월 12일 알마티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카자흐지회와 고려인 협회 주최로 카주구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대사, 신형은 알마티 총영사, 이재완 평통 지회장과 세릭 세이두마노프 알마티 부시장, 김게르만 고려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교민과 고려인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백주현 대사는 개회식 인사말에서 “이제 한국동포사회와 한인회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 모두 힘을 합쳐서 카자흐 발전과 또 한국과 카자흐 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게르만 고려인협회 부회장은 “올해가 한국과 카자흐 수교 20주년이고 고려인이 카자흐에 거주한 것이 75년이 됐다”면서 “오늘 처음 한인과 고려인 간 큰 공동행사로 축제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한인과 고려인 간 축구 경기로 시작됐으며 여자들과 어린이가 함께한 축구 경기, 고려인과 한인 간 줄다리기 시합 등이 열렸다.

축구경기 중간에 열린 개회식에는 고려문화센터의 합창단과 고려극장 무용단의 북춤과 사물놀이, 카자흐 춤 등이 이어졌으며 카주구 대학생들의 케이팝 커버댄스도 선보였다.

특히 식전행사로 열린 카자흐 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경기 때는 관중이 박수를 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축제에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록 사진전과 독도 사진전이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우수토베에서 고려인 정주 75주년 기념 감사비 제막행사가 5월 28일 열렸다.

우수토베의 비슈토베 언덕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백주현 주 카자흐스탄대사, 투그자노프 룩바노비치 민족총회 부의장, 무까노프 메이니르하노비치 알마티주 부지사를 비롯한 고려인과 현지인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75년 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우수토베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을 현지 카자흐인들이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

이희열 연합뉴스 알마티 특파원



# 재외동포 문제, 조사연구 중요하다



이 선 민  
조선일보 오피니언부장

지난 2010년 말 현재 우리 재외동포는 약 720만 명이다. 중국(270만4000명), 미국(217만6000명), 일본(90만4000명),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53만5000명)을 비롯해서 동남아, 캐나다, 유럽, 대양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구석구석 한민족이 살고 있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한반도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재외 한인 규모는 절대적 수치로 따지면 중국인, 인도인, 유태인, 이탈리아인에 이어 5번째이고, 모국(母國) 인구 대비 비중은 유태인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재외동포에게 관심을 쏟은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겪었던 오랜 세월 나라 안에는 사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신경을 쏟을 여유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높아졌다.

그 결과로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했고, 2000년대 들어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이 차례로 시작됐으며 2007년에는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도 제정됐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재외동포들과 관련된 이런 활발한 움직임과 현안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갖는 궁금증은 과연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탄탄한 현

실적 근거와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 재외동포들을 분야별로 가능한 많이 한자리에 모아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형성 과정과 특성에서 다른 어떤 나라의 재외동포 공동체(디아스포라)보다 다양한 우리 재외동포 현황을 고려하면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당한 경제력과 좋은 교육배경을 토대로 그 나라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미국·유럽의 재외동포들과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중국·독립국가연합의 재외동포들은 분명히 다르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충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 재외동포 사업이 당장 눈앞에 수치로 나타나는 실적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원격지 민족주의'(long-distance nationalism)라는 관점에서의 연구, 이스라엘·인도·중국 등과의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재외동포의 범주와 활동 방향에 관련해서는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민족공동체론'도 주목할 만하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제-문화공동체를 지구촌에 만드는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민족적 과제라는 주장은 한민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매개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남북통일과 재외동포 통합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재외동포 문제를 이렇게 이론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몇 개의 관련 민간단체들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외동포재단 안의 조사연구팀을 확대개편해서 부설 재외동포 연구소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위상이 비슷한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연구소를 두고 있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각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연구역량을 하나로 묶어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창**



# 한상 네트워크, 한국의 성장 원동력



손창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종합 판로지원 기관'으로서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9조'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있는 한상들의 고국 방문 자리에 국내 우수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자 재외동포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전시회를 주관·운영해왔다.

'세계한상대회'를 통해서 세계 한상들과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수출에 대한 거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물류, 대금지급, 제품 A/S 등 서로간의 따져야 할 것도 많으며, 국내거래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한 절차와 꼼꼼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전시회에서 바이어를 만나 계약을 하는 자체가 매우 힘든 부분이다.

'진명21' 업체는 01년부터 소형소방차 관련 신규 사업을 시작하여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으나 실적은 미비했다.

2010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9차 한상대회 기업전시회에서 인도, 터키 지역 한상을 만나 3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부산 대회에서 10만 달러 수출계약을 추진했다. 이는 기존에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하우와 한상대회에서 적절한 바이어를 만나 수출이 되는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 중소

기업에서도 수출하기 위한 업체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대회는 10년간 개최해 오면서 이제는 한인 최대의 경제교류의 장으로써 행사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재 참가를 하는 한상 또는 기업일수록 한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 기대치도 높아져가고 있다.

한상대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글로벌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마련이다.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의 행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 역할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한상대회의 두 번째 목적은 한상과 중소기업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함이다. 기존의 한상회의 새로운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에 맞는 국내 중소기업과 매칭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비즈니스 실적 창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고 신규바이어 유치, 한상의 수요에 맞는 업체 발굴, 상담 매칭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한상대회가 중국의 화상대회를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 성장한 만큼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 한상, 참가 중소기업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상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세금혜택, 행정상 편의(수출입 관련 규제완화) 등의 정부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한상대회는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1차 세계한상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10월 16일~18일, 3일간 350부스 전시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상대회의 취지와 의의를 중점으로 하고, 한상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한상 특별생방송'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한상과 중소기업을 위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한 단계 높아진 '한상대회 기업전시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장**



# 클릭! 한상넷(www.hansang.net)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등록사이트 개편, 사전등록 접수 시작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네트워크’라는 슬로건 아래올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DB를 표준화하고 기존 세계한상대회 참가자는 물론, 향후에도 대회 참가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DB관리를 위해 세계한상대회 등록사이트를 개편하여 5월에 오픈했고, 오는 9월 17일까지 대회 사전등록을 접수한다.

동 사이트는 대회참가를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개별적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할 경우 등록비 할인혜택과 함께 현장에서 간편한 절차로 대회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을 온라인 상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신청자에 한해 참가자의 등록정보 DB가 바로 매칭으로 연결되는 등, 기능이 추가 보완됨에 따라 보다 적중도 높은 비즈니스 매칭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대회등록 시 동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의 참가자의 경우, 참가자가 직접 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숙박 미사용 선택 기능도 포함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도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 대회등록사이트 주소 : www.hansang.net
- 등록 / 숙박 문의 : 한상대회본부사무국  
TEL : +82-2-3415-0150 / Email : hansang@okf.or.kr
- 기업전시 문의 : 한상대회전시사무국  
TEL : +82-2-6678-9321 / Email : yong79@sbdc.co.kr
-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문의 : biz@okf.or.kr
- 사이트 문의 : hansang@okf.or.kr



## ‘제7회 동남아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싱가포르서 열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남아시아 10개국 21개 한글학교의 교장, 교사 60여명이 참여한 '동남아시아 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가해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남아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에 참석해 한글학교의 당면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동남아시아한글학교협의회(회장 박남수)가 주최하고,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토요학교'가 주관한 '제7회 동남아 한글학교 교사연수회'가 5월 17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박기출 싱가포르한인회장, 오준 싱가포르 대사가 초청됐고, 동남아시아 국가 10개국 21개 한글학교의 교장, 교사

60여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교사연수회에는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방문해 한글학교 교사들을 격려했고,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남아 한글학교의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동남아한글학교 교육이 더욱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오준 싱가포르 한국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싱가포르 한인여성회 회장은 금일봉을 통해 행사를 후원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박기영 교수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배고운 교수는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쳤다.

동남아협의회는 "예년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점이 아쉬웠

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예년에는 100여명의 교사가 참석했지만 올해는 싱가포르의 고물가로 인해 부득이 참가 인원수가 60여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싱가포르 토요학교 전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수준 높은 교사연수회가 진행됐다. 특히 싱가포르한인여성회장의 지원금은 교사들에게 큰 사기를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재단, 싱가포르한국대사관이 후원했다.

동남아시아협의회 총회가 교사연수회 기간 중에 열렸다. 부회장이었던 박정희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토요학교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코타키나바루한국인학교 이철동 교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회에서 내년도 교사연수회 개최지가 결정됐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며 필리핀한글학교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이밖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방문해 한글학교 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동포 차세대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 역사와 문화 등을 잘 알아야 한다"며 "재단은 한글학교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를 비롯해 초청 장학사업 등 차세대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준희 미 에드슨시 전 시장 '희망 메시지' 강연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미국 뉴저지주 에드슨시 시장을 지낸 최준희(41, 미국명 준 최)씨를 초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실시했다.

최 전 시장은 5월 21일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이어 22일 용인의 고를 차례로 방문, '전 세계적 불안정 시기에 만족스러운 직업과 의미 있는 삶을 찾는 법' 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연세대의 이대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열린 강연을 펼친 최 전 시장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국내 학생들에게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전 시장은 3세 때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1.5세로,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컬럼비아대 국제관계대학원을 졸업한 뒤 백악관 예산행정관리국과 뉴저지주 교육부 등지에서 일하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에드슨 시장을 지냈다.

현재는 뉴저지주립대의 블루스타인 공공정책대학원에 출강 중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미국 뉴저지주 에드슨시 시장을 지낸 최준희(41, 미국명 준 최)씨를 초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실시했다.

이며, 올해 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역경을 딛고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한 재외동포들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국내 차세대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차세대들이 이번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배우고 720만 재외동포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단 교육 사업에 참여하였던 한국어 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25일 재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재단 교육사업의 발전 방안 등을 수립시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 외부 인사로는 송향근 부산외대 교수, 조향록 상명대학교 교수, 김정숙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최영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최정순 국제한국어언어문화회 회장, 이해영 이중언어학회 수석부회장,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재외동포를 돕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송향근 부산외대 교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문화, 등급화,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표준교사 교육과정을 만들어 단계별로 교사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한글학교에서 뿐 아니라 동포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동포재단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육과정 및 교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재단 교육 사업에 참여하였던 한국어 교육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25일 재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향록 상명대 교수는 "한글학교 지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지 공교육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은 "스터디코리안의 콘텐츠를 좀 더 젊은 세대에 맞는 시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현지인과 재외동포 성인을 위한 교육에도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욱 한국외대 교수는 한글학교의 고급화 및 모바일 활용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정순 국제한국어언어문화회 회장은 스터디코리안의 접근성을 강화를 주문했다.

김정숙 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재외동포교육문화원수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연수원이 설립되어 상설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재외동포재단은 5월 30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12층에 위치한 포에버리더스클럽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재단 장학생 모두가 재외동포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재이며 오늘 이 자리가 큰 도전을 위해 새롭게 꿈을 키우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학업 이수 후 각자의 거주국으로 돌아가 거주국 내에서 모범이 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장학증서로 선발된 것에 감사해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앞으로 모국에도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장학증서를 받는 장학생들을 대표해 장하리 학생(서울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은 답사를 통해 “미국에서 한글학교, 한국문화원을 통해 모국문화를 접하며 한국을 더욱 알고 싶어 오게 됐다”며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고려대 경영대학 학사과정) 학생도 “우리는 5대양 6대주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모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모두 앞으로 조국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사업은 재외동포사회 및 모국 발전에



재외동포재단은 5월 30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12층에 위치한 포에버리더스클럽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바지 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이수기회를 제공하는 석·박사과정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9년부터 학사과정을 새로이 개설하였다.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받게 되는 장학생들은 2011년도에 선발되어 2011년도 2학기과 2012년도 1학기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로 총 42개국 53개 공관에서 학사 95명, 석·박사 77명의 학생이 1차 추천되었고 2011년 ‘재단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학사 44명, 석·박사 39명으로 총 34개국 83명이 선발되어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개별 통보되었다.

## 세계한인언론인대회서 ‘스터디코리아’ 소개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팀 안수정 대리는 5월 9일 서울 서대문로터리에 있는 바비엔호텔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온라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사이트인 스테디코리아(<http://study.korean.net>)을 소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재외동포 차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스터디코리아’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

하여 ‘틴코리아’이라는 명칭으로 2002년부터 개발·운영해 왔다. 2007년부터 ‘스터디코리아’로 명칭을 변경,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 및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수정 대리는 또한 최근 개발된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세계한인언론인들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 지침에 대한 콘텐츠와 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현실성이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노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지원 여부도 요청하였다. **창**



# 한·중·일 정상회의 ‘안보-경제협력’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5월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최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한·중·일 FTA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유엔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북한 정세와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 및 북한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처에 있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3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시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을 세계 성장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3국 민·관이 하나가 돼서 무역투자 촉진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자유무역 허브국가’ 향한 한·중FTA 시작



한·중 양국은 5월 2일 베이징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을 열었다. 왼쪽 세번째 인물이 천 상무부장.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며 우리의 경제 영토는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FTA 허브국가’가 된다는 의미에서 주목 받고 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WTO협정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5월 10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FTA는 한·미FTA와 한·EU FTA에 버금가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2천2백6억 달러로 미국(1천8억 달러)과 EU(1천31억 달러)를 더한 것보다 크다.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5년 안에 GDP는 0.95~1.25퍼센트, 후생은 1백76.5억~2백33.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효과도 크다. 5년 안에 19만~25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



# 50년전 개교 민족교육의 보금자리로

## 일본 나고야 한국학교

반세기 동안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이바지해온 나고야 한국학교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차세대육성의 보금자리로 불리고 있다.

1962년 개교 이래 나고야에서 민족교육을 담당하며 지금까지 8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오는 11월 3일이면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 반세기 동안 정체성 교육을 맡아온 한국학교의 역할에 대해 재일 동포 사회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현재 539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문화, 한국요리, 서화, 노래, 전통무용 등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수업을 받고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재일동포 2세, 3세들에게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가르쳤지만 한류 붐을 타면서 최근에는 일본인들도 성인반에 등록해서 배우고 있다.

화요일 오전 시간과 토요일 수업은 교실이 부족해서 아이치한국인회관에서 장소를 빌리고 있다. 초등부는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우리말 공부와 태권도,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이밖에도 주중에는 영화 시나리오반, 엄마·아빠를 위한 한글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효심 교장은 “현재 전임강사 4명을 포함해 25명의 교사가 초등부 67명과 성인반 500명을 가르치고 있다”며 “민족학교지만 지역민에게도 개방하는 한국어평생교육원이다”고 소개했다.

학교의 교사진은 주로 나고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과 현지에 정착한 재일동포 및 뉴커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장은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해 재일민단에서 물심양면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반 학생이 늘면서 학생회나 봉사자들이 늘어나는 등 자발적인 헌신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중부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전하는 구심점이 되



2012년 3월 4일 나고야 한국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수상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는 25명의 교사가 초등부 67명과 성인반 500명을 가르치고 있다.

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데 6월 16일에는 안도현 시인의 문학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이 교장은 “초등부에는 재일동포 4, 5세뿐 아니라 뉴커머의 자녀들과 현지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토요일 오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체험이 앞으로의 삶에 귀중한 재산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한국학교 이사장은 “민족 교육이란 모국의 전통과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해 나가는 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포 자녀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 이름소개

“실례지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김영환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함자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위의 예문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법에 벗어나는 표현이다. 또 흔히 ‘저의 아버지 함자가 김자 영자 환자입니다’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어른의 성함을 말할 때는 ‘성(姓)’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고 먼저 ‘성(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름의 글자를 하나씩 부르면서 뒤에 ‘자(字)’자를 붙여서 말한다. 앞의 문장을 예로 들면,

‘저희 아버지 함자는 김 영자 환자입니다’ 또는 ‘저의 아버지는 김 영자 환자를 쓰십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

또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0자 0자 0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어법에 맞지 않다.

물론 전화로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든가, 초면에 인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뜻으로 ‘0자 0자 0자가 맞습니까?’하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자기 이름을 ‘0자 0자 0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

## 홍역을 치르다

흔히 몹시 애크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말할 때 ‘홍역을 치렀다’고 하는데, 이 표현에 나오는 ‘치르다’와 ‘치루다’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어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이 두 문장 가운데 하나는 바른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틀린 표현인데, 어느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

두 번째 문장인 ‘계약금을 치렀습니다’가 맞다.

‘치르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인데, ‘홍역을 치르다’와 같이 무슨 일을 당하여 겪어 낸다는 뜻도 있지만, 방금 들은 예문에서처럼 마땅히 줘야 할 돈이나 값을 내 준다는 뜻도 있다.

그런데 특히 돈이나 값을 낸다는 뜻으로 말할 때 ‘치루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치루다’라는 표현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다. 그러므로 ‘물건 값을 치루다’가 아니라 ‘치르다’가 옳은 표현이다.

## 할부/할부

“이거 비쌀 텐데 어떻게 사 왔어요?”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샀지요.”

요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일정한 액수가 넘으면 몇 개월에 걸쳐서 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대화에는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잘못 쓰거나 잘못 읽는 한자 중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나눌 할(割)’자일 것이다. 이 ‘나눌 할’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할’로 읽거나 쓰지 않고 ‘할’이라고 할 때가 참 많다. 앞의 대화에서도 ‘할부로 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할부로 샀다’고 해야 맞다.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 값을 싸게 해 준다고 할 때 ‘할인’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이 예문에서도 ‘역할’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 역시 ‘역할(여갈)’이라고 발음하고 써야 한다. **참**



# 한산모시의 맥을 이어온 ‘서천’

## 자연의 날줄과 인간의 씨줄이 만나다

**충**남 서천의 특산물인 한산모시는 울이 가늘고 직조상태가 섬세하다. 특히 세모시는 옷 속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가볍다. 또 색이 백옥처럼 희고 결이 고와 입으면 고결한 기품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통풍성과 땀 흡수력이 뛰어나고 질감이 까슬까슬해 더위를 잊게 한다. 그래서인지 여름철 옷감으로 이를 따라올 것이 없다고 한다.

섬유공업 발달과 의복 현대화로 잊혀져가던 한산모시는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시의 맥을 이어온 서천군은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 1989년부터 한산모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산모시의 재발전은 이제 의복을 넘어 음식에까지 이르렀다. 모시품을 가공한 모시잎차가 개발돼 시판 중이다. 모시품은 무기질이 풍부한데, 특히 칼슘 함유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평생 이가 닳도록 모시를 짜며 살아온 한산 할머니들은 허리가 굽거나 골다공증을 앓는 이가 없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서천에는 동쪽 끝에는 신성리 갈대밭이, 서쪽 끝에는 마량리 동백나무숲이 있다. 두 곳 모두 서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다. 서쪽 마량리 동백나무숲이 20세기 서천을 대표하는 명소라면, 동쪽 신성리 갈대밭은 21세기의 떠오르는 명소다. 신성리 갈대밭은 면적이 19만8천㎡에 이른다.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다.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 광활한

갈대밭을 보려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인 수령 500년 안팎의 동백나무 85그루가 작은 동산 위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백나무 동산 정상에 오르면 동백정(冬栢亭)이 있다. 동백정에 올라 서해를 바라보니 송림과 바다, 섬과 배가 어우러져 한 폭의 진경산수화가 펼쳐졌다.

바다와 육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곳인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 수산물의 약 60%가 갯벌에서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해안을 ‘세계 최대의 식량기지’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 넉넉한 서천에는 전국적인 명성의 갯벌 체험 마을이 두 곳이 있다. 선도마을과 월하성마을이다.

6월에 서천 갯벌을 찾아가면 죽합과에 속하는 맛조개를 잡아볼 수 있다. 구멍에 소금을 뿌리면 어른 손가락 크기의 맛조개가 고개를 내미는데 이 때를 놓치지 않으면 산채로 잡을 수 있다. 맛조개 이외에 바지락, 밀조개, 달랑게 등도 잡아볼 수 있다.

해산물이 총망라 돼있는 서천특화시장은 서천을 방문하면 꼭 들어보아야 하는 재래시장이다. 새벽 바다에서 건져 올린 멧게, 해삼, 꽃게도 몇 시간이면 이곳에 당도한다. 봄에는 주꾸미와 도미, 가을에는 전어와 대하 등 제철 수산물이 입맛을 유혹한다.

서천은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 천리 길을 흘러온 금강이 바다가 되는 지점이다. 금강 하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강하구둑이다. 서천 장항읍과 군산을 잇는 1천841m 길이의 방조제로 인근 지역에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조절 기능을 맡고 있다. **창**

- 1 서해안 최고로 알려져 있는 서천의 마량리 동백정에서 바라본 일몰.
- 2 충남 서천 비인면 선도리는 갯벌 체험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다. 간조 시 물에서 약 1.5km 떨어진 쌍도까지 광활한 갯벌이 드러난다. 삽, 호미 등 장비를 빌려 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들어가 조개와 게를 잡아보며 갯벌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 3 서천특화시장은 충남 서천에서 빼놓지 말고 둘러야 할 재래시장이다. 만국기가 펄럭이는 지상 2층 규모의 서천특화시장 안에는 서해안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총망라돼 있다.
- 4 충남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은 면적이 19만8천㎡에 이른다.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다.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 광활한 갈대밭을 보려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새떼처럼 모여든다.



1





서천 한산면 지현리 건지산 기슭에는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한산모시관이 조성돼 있다. 한산모시의 원료가 되는 모시풀(苧麻), 갈쌈 기구, 모시짜기 시연 등을 볼 수 있다. 사진은 한산모시관에서 모시짜기를 재현하는 중요무형문화제 제14호 방연옥 여사의 모습이다.

우리 조상들은 한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모시옷을 즐겨 입었다. 모시의 고장 충남 서천에서는 천연 모시의 시원함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도 함께 즐기는 모시문화제를 20년째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갈대밭과 동백나무숲, 갯벌이 있어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고장이 서천이다.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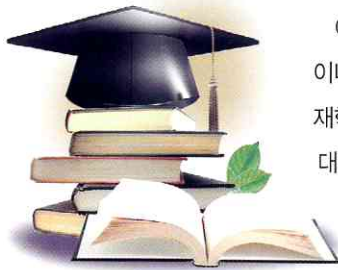
4



## 2012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

국내 대학생과 재외동포 대학생이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관심을 높이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2012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에는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한민족 대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논문주제는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사회, 한민족 정체성 함양, 모국과의 협력강화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논문작성요령, 제출절차 등 논문응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OREAN.NET(www.korean.net) 참고하고 논문 제출기간은 5.9(수)~8.24(금)까지이며, 수상작은 10월중 개별통보 및 KOREAN.NET에 공지하며,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논문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대상(1편)** : 외교통상부 장관 상장 및 장학금 4백만원
- **우수상(2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장학금 각 2백만원
- **장려상(2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장학금 각 1백만원

### 독자후기 \_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재외동포재단이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2012 세계적인 회장대회'를 개최한다는 기사를 '재외동포의 창' 웹사이트를 통해 읽었다. 또한 몽골한인회를 통해 이곳 몽골에서는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2012 아시아한인총연합회회장대회'와 '제7회 동남아한상대회' 등 굵직한 두 개의 지구촌 한인 행사가 개최된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 박호성 몽골한인회장은 "몽골에서 두 개의 지구촌 한인 대회가 열려 기쁘다. 한인들이 전폭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구촌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가슴이 벅차다. 부디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가 뚝뚝 뭉쳐 세계 속에 부상하는 대한민국의 국격 및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계속해 수행해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_ 김연진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가포르 대사관에 비치된 '재외동포의 창'이라는 소식지를 접했다. 해외 생활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던 시간과 비슷해지고 있는 나로서 이러한 재외동포 관련 소식지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

'창'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 늘 고국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특히, 이번 5월호에 실린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모집공고를 보고 작년 보다 좀 더 알차고 다양한 나라의 차세대들이 고국을 방문해 다양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이라는 이름에 맞게 재외동포의 창은 계속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 독자 후기를 받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면을 꾸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읽으신 후 내용 등에 대한 감상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독 요청이나 주소 변경 요청 등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pr@okf.or.kr(매월 20일까지)





HANIN

2012

# 세계한인회장대회

2012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2012. 6. 26(화) ~ 6. 29(금) | 서울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호텔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속의 일류한인!*

주최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재외동포재단** 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